

IOPE



점·점·점· 좋아지는 피부 바이오 에센스라면 가능해요

아이오페 바이오 에센스

쉴수록 더 매끄럽고 투명한 피부를 만드는 바이오의 효과

한 병 다 쓰면 바꾸고 싶은 에센스-

하지만 바이오 에센스는 아이오페만의 혁신적인 바이오 리독스™ 성분이
피부를 지속적으로 변화시키니까, 몇 병을 써도 다음 병이 기대됩니다.

피부 필수 항산화 효소를 100% 동일하게 재현한 바이오 리독스™

바이오 리독스™는 피부 생명 활동에 꼭 필요한 티오레독신을 아이오페만의
독자적 기술로 재현한 혁신적 바이오 성분입니다.

• 3일 후 제품 사용 만족도

83%

조사기관 : (주) Ipsos / 조사대상 : 성인여성 100명 대상
조사기간 : 2014. 3. 20 ~ 3. 28 (9점 척도 중 상위 4점을 긍정 응답률로 계산)



바이오 리독스™
93.7%

전국 아리따움과 대형 마트에서 아이오페를 만날 수 있습니다 | 고객센터 080-023-5454 | www.iope.co.kr

주부교실

5 * 6

2014
제 449호



사단법인 전국주부교실중앙회
NATIONAL COUNCIL OF HOMEMAKERS' CLASSES

태양빛을 지우고 생기를 바르다

수려한 비책 자단 선 쿨링 쿠션 파운데이션

SUN
선&쿨링

SPF50+, PA+++의 강력한
자외선 차단효과와 시원한 청량감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62%
생기 특득

62%의 스킨디제닝 성분과 인삼, 맥문동,
오미자, 구기자, 산수유 등 한방 성분이
생기부여 및 맑은 안색을 선사합니다

COVER
밀착 커버

태양도 잡티도 빈틈없이 잡아주는
완벽한 커버력으로 결점 없는
광채 피부를 연출해 줍니다



화사하고 생기있는 스킨케어 효과
태양도 잡티도 잡아주는 빈틈없는 커버력

수려한
뿌리깊은 효능 한방

*전국 대형마트, 보매(LG화장품 전문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본회는 주부의 사회성을 개발하고,
봉사정신을 함양함으로써
가정과 지역사회의 복지향상에
기여하며, 민주시민으로서의
주부에게 부하된 사명과 역할을 체득
실천함에 있어
주부중심, 지역중심의 조직 및 활동전개로
새 주부상을 정립해 나간다.

발 행 일 2014. 6. 10
등 록 일 1972. 8. 31
등록번호 라-1616호
발 행 사단법인전국주부교실중앙회
발 행 인 주경순
편 집 인 임경애
담 당 원혜진
주 소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45길 7
전 화 2265-3627, 3628, 0637
2266-5870, 2273-6300, 2485
팩 스 2279-9341
홈페이지 <http://www.nchc.or.kr>
인 쇄 세일에스애피
대 표 심 상 도

비매품

주부교실

5 * 6

2014
제 449호

생각해봅시다

4 부모 노릇 홍은희

실태조사

6 수입루류 판매가격, 수입원가보다 3.4배~8.9배 높아

알아봅시다

10 식품첨가물에 관한 Q&A

소비자정보

12 새롭게 떠오르는 소비자 '블루슈머' 6

소비자경보

14 뜨거운 지구를 식혀주는 '녹색커트'

식품이야기

16 알뜰폰, 가입시 계약조건 꼼꼼히 확인하세요!

소비자상담

18 소비자의 소리 김영란

에세이

20 몰래 주는 사랑 김미수

현장체험

22 체험을 통해 전통 맛과 친환경 먹거리의 소중함 다시 깨달아 이춘반

제2회 청렴글짓기 대상

24 내가 깨달은 '청렴한 세상' 최윤용

문학산책

26 이달의 읽을 만한 책

주부교실게시판

27 <전국지도자대회> 및 <여름철 냉방온도조사 사업> 실시

지부탐방/대구광역시지부

28 회원들의 열정과 화합이 지부의 가장 큰 원동력

지부소식

30 전국 16개 시·도 지부 및 232개 시·군·구 지회 소식



부모 노릇

홍 은 희 / 명지대 디지털미디어학 교수

32년 전 일이다.

기자 생활에 폭 빠져 '나는 독신주의자'를 외치던 나에게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부모는 자식을 결혼시켜야 부모로서의 의무를 다한 것이다. 그런데 너 편하자고, 내가 평생 의무감에 사로 잡혀 살아야 하나?”

그날, 나는 생전 처음으로 '부모의 의무감'의 무게를 절감했다. 그리고 아무진 '비혼'의 꿈과도 작별했다. 물론 그날 어머니가 후렴처럼 붙였던 '결혼 이후 네가 어떤 삶을 살든, 그것은 네 인생이며 나와 상관 없다'는 말도 함께 가슴에 새기면서.

작년 늦가을, 딸이 결혼했다.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다니는 딸이었지만, 만혼이 유행인 요즘으로 치면 결혼하기에 이른 감이 없진 않았다. 하지만 이즈음 딸에게 기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곤 깜짝 놀라 다시 나를 추스르는 일이 잦아지면서 이리다간 딸을 품안에서 떼어내지 못하는 게 아닐까 내심 두렵기도 했던 터여서 좋은 짝이 있을 때 결혼시키자는 쪽으로 마음을 정리했다. 나를 변화시켰던 어머니의 말씀을 상기하면서.

그러나 어머니와는 달리, 나에게 딸의 결혼은 '의

무감에서의 해방'이 아니었다. 오히려 '부모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나에게 던져주었다.

결혼을 하고, 두 번에 걸친 출산을 하면서도 나는 정작 '부모'라는 것에 대해 깊이 생각해본 적이 없었다. 아무런 준비 없이 어머니의 딸이 되었던 것처럼, '부모'란 저절로 따라오는 '결혼의 부산물'과도 같았다. 30일의 출산휴가가 고작이었던 1980년대 후반, 나에게 더 무거웠던 것은 '부모'가 아니라 '직장'이었다.

그러던 내가 부모라는 존재에 실눈이나마 뜨게 된 것은 큰 아이가 유치원에 다니면서였다. 학부모 참관 수업이 있던 날, 나는 여느 때처럼 일 때문에 유치원에 갈 수 없다고 아이에게 말해두었었다. 그런데 그날 따라 유치원 인근에서 처리할 업무가 주어지는 게 아닌가. 서둘러 일을 마치고 수업참관에 늦을세라 종종 걸음으로 복도를 걷고 있을 때 유리창 너머 아이와 눈이 마주쳤다. 아이는 조그만 입술을 달싹이며 계속 무엇인가를 중얼거리고 있었다. 가까이 다가가자 작은 속삭임이 귀를 찔렀다. '우리 엄마 온다, 우리 엄마 온다, 우리 엄마 온다...'. 아이는 나를 뻔히 보면서도 중얼거림을 멈추지 않았다. 그 시절 나의 '부모 노릇'은 바로 '왔다'와 '온다'의 차이처럼 '현실'과 '염원'의

사이에 어정쩡하게 놓여있었다.

나의 '부모 노릇' 제 3장은 딸의 중학시절에서 펼쳐진다. 초등학교시절의 '절대평가'가 막을 내리고 점수가 등수로 변환되는 중학시절, 딸이 처음 받아온 성적표는 문자 그대로 충격이었다. 안아주고, 예뻐해주는 1차원적인 부모 노릇을 '부모 노릇'의 전부로 안 결과였다. 딸에게 정작 필요했던 '부모 노릇'은 자신의 꿈을 발견하고 키워갈 수 있게 이끌어주는 것이었음을 뒤늦게 깨달았다.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는 즐거움을 맛보면서 딸이 자신감을 회복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했다. 나의 어설픈 '부모 노릇'이 빛은 결과였다.

학업을 끝마치고 어엿한 사회인으로 제 앞가림을 하며 살아가는 딸을 보며 나는 기꺼이 '부모'이기보다는 '친구 되기'를 선택했다. 집안일은 물론, 직장일에서 또래 친구끼리의 일에 이르기까지 딸과 나는 흥금을 터놓고 이야기 했다. 때로 사회적인 관심사를 놓고 토론을 벌이기도 하고, 의기투합하기도 했다. 나의 '부모 노릇'은 이제 마감을 하는 성 싶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

결혼으로 떠난 딸의 빈자리는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다. 퇴근하기가 무섭게 뒤를 졸졸 쫓아다니며 재잘거리던 목소리도, tv앞에서 깔깔대던 웃음소리도 모두 사라져버린 집은 너무나 적막했다. 나는 젊은이들 사이에 도는 새 유행어를 알기도 어려웠고, 요즘 인기 있다는 신상 먹거리조차 도통 알 수 없었다. 누군가로부터 위안을 받고 싶을 때 딸을 한 번 안아보는 것으로 대신했던 그 아늑함도, 쌓인 피로를 한 방에 날려주던 상큼한 뽀뽀의 감촉도 다시 맞볼 수 없었다. 보

고품과 그리움이 뒤엉키며 뭐라 이름 할 수 없는 슬픔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조금씩 섭섭함이 밀려오기 시작했다.

'부모란 무엇인가'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것은 바로 이 때였다. 딸이 새로운 등지를 틀고 떠난 후에야 나는 비로소 내가 딸의 '부모'였다는 사실, 그리고 그 부모는 어떠한가 하는가, 부모란 어떤 존재인가를 따져보게 되었다.

내가 내린 결론은 이렇다. 부모란 변함이 없는 존재라는 것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은 존재, 우주가 사라진다 해도 바뀔 수 없는 존재, 그것이 바로 부모라는 것이다. 복잡하고 변화무쌍한 인간관계에서 태산처럼 굳건히, 처음 만났던 모습 그대로 듄직하게 자리하는 존재가 부모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자신이 낳았거나, 새로 얻어진 관계이거나 간에 '부모'라는 이름으로 맺어진 관계라면 똑같다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부모 노릇'의 마지막 장을 이렇게 장식하려 한다.

늘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기. 다가가지도, 돌아서지도 않고, 그 자리에 같은 모습으로 있기.

그래서 자녀들이 일일이 확인해보지 않아도 부모가 항상 그 자리에 있음을 알게 하여 자녀가 안심할 수 있게 하기. 또 언제고 자녀가 찾을 때에는 부모가 어디 있는지 몰라 헤메고 다니지 않고 손쉽게 찾을 수 있게 하기. 그래서 시간의 길이를 넘어서서 항상 낮설지 않고, 어색하지 않은, 익숙하고 편안한 안식처가 되기.

딸에게도,
사위에게도,
아들에게도,
며느리에게도.

수입주류 판매가격, 수입원가보다 3.4배~8.9배 높아

본회에서는 지난해 10월 국내외 백화점, 대형할인마트, 전문판매점, 해외 온라인사이트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와인 및 맥주 총 2,268개 제품을 대상으로 가격조사를 실시했고, 서울 및 6대 광역시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수입 주류에 대한 소비실태 및 인식조사를 각각 실시했다. 다음은 조사내용의 일부를 발췌 요약한 것이다.

◆ 수입와인 국내 평균가격, 수입원가 보다 8.9배 높아

수입주류의 가격은 관세, 주세, 교육세, 부가세 등 각종 세금이 반영되어 결정된다. 이러한 각종 세금은 수입업체들이 해외 제조사로부터 수입주류를 공급받는 가격에 운임, 보험료 등을 합한 과세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부과되는데, 이러한 세금에 해당되는 금액도 수입주류의 수입가격에 이미 반영되어 있다.

수입원가의 과세가격(운임보험료 포함가격)에 관세, 주세, 교육세, 부가세 등 과세후 가격을 품목별로 계산해보면 레드와인은 7,663원이었으며, 화이트와인은 9,093원, 맥주는 809원으로 조사되었다. <표-1 참조>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레드와인 1병(750ml) 평균가는 68,458원이었으며, 화이트와인은 1병(750ml) 평균가는 53,988원, 맥주는 1병(330ml) 평균가는 2,717원으로 나타났다. <표-2 참조>

<표-1> 수입원가 과세 후 가격

구분	과세가격	관세	주세	교육세	부가세	과세액	총수입원가
레드와인	5,238		1,571	157	697	2,425	7,663
화이트와인	6,215		1,865	186	827	2,878	9,093
맥주	320	60	273	82	74	489	809

<표-2> 과세후 수입원가와 국내 평균판매가의 비교

구분	기준	국내평균가격(A)	과세후 수입원가(B)	가격차이율(A/B)
레드와인	1병(750ml)	68,458	7,663	8.9
화이트와인	1병(750ml)	53,988	9,093	5.9
맥주	1병(330ml)	2,717	809	3.4

레드와인의 수입원가와 국내 평균판매가를 비교해보면 1병(750ml)의 수입원가는 7,663원이었고, 국내평균가는 68,458원으로 수입원가에 비해 8.9배 비싼 것으로 나타났고, 화이트와인의 수입원가와 국내 평균판매가를 비교해보면 1병(750ml)의 수입원가는 9,093원이었고, 국내평균가는 53,988원으로 수입원가에 비해 5.9배 비싼 것으로 나타났으며, 맥주의 수입원가와 국내 평균판매가를 비교해보면 1병(330ml)의 수입원가는 809원이었고, 국내평균가는 2,717원으로 수입원가에 비해 3.4배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주류에 대한 세금까지 모두 포함된 가격에 판매관리비, 물류비용 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수입원가와 판매가격이 큰 차이는 중간도매상이나 수입업체가 챙기는 유통마진으로 볼 수 있다.

◆ 수입주류 국내 판매가격, 해외가격보다 대부분 비싸

국내외에서 공통으로 판매되고 있는 수입 와인 8개 제품의 국내외 가격비교를 해보면 8개 제품 모두

국내가격이 해외가격보다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별로는 샤토팔보(2009산)의 국내가격이 해외가격의 5.4배로 가장 비쌌고, 바롱나다니엘뵘이약(2010산) 3.2배, 무퐁까페(2011산) 2.7배, 샤토몽페라(2010산) 2.5배, 그레씨에그랑뿌조(2009산) 2.0배, 몬테스알파(2010산) 1.8배, 옐로우테일샤도네(2011산) 1.8배, 카이켄(2011산) 1.5배 순으로 나타났다. <표-3 참조>

수입와인의 국내 평균가격을 100으로 보았을 때 해외 평균가격은 34.7인 것으로 나타나 국내 가격과 해외 가격이 차이가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수입맥주 역시 국내 가격이 해외 가격보다 대부분 비싼 것으로 조사되었다.

해외가격 대비 국내가격이 높은 것으로 조사된 제품은 허니브라운(2.1배), 기네스드라프트(2배), 크롬바커(1.9배), 밀러(1.9배), 칭따오(1.9배) 순이었다. 반면에, 산미구엘과 샷프로프리미엄은 국내가격이 해외가격보다 오히려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4 참조>

<표-3> 수입와인의 국내외 가격비교

(단위 : 원)

종류	제품명	연도	제조업체	수입업체	원산지	용량(ml)	국내 평균가(A)	해외 평균가(B)	차이율 (A/B)
레드와인	샤토팔보	2009	샤토 팔보	금양인터내셔널	프랑스	750	150,000	27,601	5.4
레드와인	바롱나다니엘뵘이약	2010	바롱 나다니엘	대유와인	프랑스	750	88,800	27,557	3.2
레드와인	무퐁까페	2011	바롱필립드 로칠드	대유와인	프랑스	750	31,700	11,607	2.7
레드와인	샤토몽페라	2010	몽페라	금양인터내셔널	프랑스	750	52,750	21,064	2.5
레드와인	그레씨에그랑뿌조	2009	샤토샤스 스플린	신세계	프랑스	750	49,000	24,260	2.0
레드와인	몬테스알파	2010	몬테스	나라셀라	칠레	750	39,000	21,117	1.8
화이트와인	옐로우테일샤도네	2011	옐로우 테일	롯데주류	호주	750	19,000	10,557	1.8
레드와인	카이켄	2011	카이켄	나라셀라	아르헨티나	750	16,000	10,881	1.5
공통판매품목의 평균가							55,781	19,330	
비교지수							100	34.7	

〈표-4〉 수입맥주의 국내외 가격 비교

(단위 : 원)

제품명	제조업체	수입업체	원산지	용량(ml)	국내 평균가(A)	해외 평균가(B)	차이율 (A/B)
허니브라운	Dundee Brewery Co.	이안마케팅	미국	355	3,100	1,481	2.1
기네스드라프트	Guinness&Co.	디아지오코리아	아일랜드	330	3,803	1,894	2.0
크롬바커	KROMBACHER BRAUEREI BERNHARD SCHADEGERG	케이비코리아	독일	330	2,793	1,450	1.9
밀러	밀러브루잉컴퍼니	샤브밀러브랜드코리아	미국	355	2,491	1,296	1.9
칭따오	tsingtao brewery co.,ltd	비어케이	중국	330	2,572	1,359	1.9
산토리더프리미엄몰츠	SANTORY LIQUERS LIMITED	오비맥주	일본	334	3,770	2,154	1.8
하이네켄	하이네켄브루어리젠비비	하이네켄코리아	네덜란드	330	2,675	1,757	1.5
레페브라운	interbrew	오비맥주	벨기에	330	2,840	1,939	1.5
백스	브레멘	오비맥주	독일	330	2,531	1,924	1.3
아사히수퍼드라이	BEIJING BEER ASAHI	롯데아사히주류	중국	330	2,832	2,385	1.2
버드아이스	안호이저부시	오비맥주	미국	355	2,825	2,436	1.2
기린이치방	KIRIN BREWERY CO,KTD	하이트진로	중국	330	2,605	2,259	1.2
코로나	CERVEECERIA MODEKO	오비맥주	멕시코	355	2,552	2,276	1.1
삿쵸로프리미엄맥주	SAPPORO BREWERIES	엠즈베버리지	베트남	330	2,926	4,551	0.6
산미구엘	산미구엘 브르워리	산미상사	필리핀	320	2,582	4,852	0.5
공통판매품목의 평균가					2,860	2,268	
비교지수					100	79.3	

◆ 동일 제품의 판매가격, 대부분 백화점이 가장 높아

수입 와인 중 백화점, 대형마트, 전문판매점 3곳에서 모두 판매되는 5개 제품의 판매가격을 비교하였을 때, 백화점 가격 수준을 100으로 볼 경우 대형마트는 88.1, 전문판매점은 88.0으로 나타나 대형마트와 전문판매점은 유사한 수준이고 백화점은 상대적으로 비싼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표-5 참조〉

제품별로 최고가와 최저가의 차이를 비교해보면, 에스쿠도로호(2010산)이 1.5배로 가장 가격차이가 심했고, 1865리제르바까베르네쇼비농(2011산)은 1.2배, 로버트몬다비나파벨리카베르네쇼비농(2010산) 1.1배, 몬테스알파쉬라(2009산) 1.06배, 에쿠스까베르네쇼비농(2010산) 1.05배 순이었다.

수입맥주의 경우, 전문판매점에서 판매되는 제품은 없었고 대형마트와 백화점 간에만 가격비교가 가능하였다. 대형마트와 백화점에서 가격 비교가 가능한 14개 제품의 판매가격을 비교해보면, 백화점을 100으로 보았을 때 대형마트는 96.9인 것으로 나타나 가격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 소비자 대부분 ‘수입주류 가격 비싼 편, 가격 인하되어야 한다’

한-미, 한-EU FTA로 인한 관세 철폐가 수입와인 가격에 반영이 되었다고 느끼는 소비자는 25.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수입 와인의 가격에 대해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비싸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구체적으로 ‘비싼 편이다’ 57.1%, ‘적당하다’ 24.5%,

〈표-5〉 수입와인 업체별 가격 비교

(단위 : 원)

제품명	연도	제조업체	수입업체	원산지	용량(ml)	백화점	대형 마트	전문 판매점	평균가	최고가 (A)	최저가 (B)	차이율 (A/B)
에스쿠도로호	2010	바롱필립드 로칠드	대유와인	칠레	750	44,200	29,900	29,000	34,367	44,200	29,000	1.5
1865리제르바까 베르네쇼비농	2011	산페드로	금양인터내셔널	칠레	750	47,750	43,000	39,000	43,250	47,750	39,000	1.2
로버트몬다비나파벨 리카베르네쇼비농	2010	로버트 몬다비	신동와인	미국	750	69,000	62,400	65,000	65,467	69,000	62,400	1.1
몬테스알파쉬라	2009	몬테스	나라셀라	칠레	750	52,000	48,900	52,000	50,966	52,000	48,900	1.06
에쿠스까베르네 쇼비농	2010	카베르네쇼비 농 카르메네르	대유와인	칠레	750	26,900	27,200	26,000	26,700	27,200	26,000	1.05
평균가						47,970	42,280	42,200				
비교지수						100	88.1	88.0				

‘많이 비싸다’ 13.8%, ‘저렴한 편이다’ 3.8%, ‘많이 저렴하다’ 0.7%순으로 나타났다.

수입 와인의 가격은 향후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약간 인하’ 46.4%, ‘많이 인하’ 31.1%, ‘유지’ 18.8% 순으로 조사돼 응답자 대부분(77.5%)이 수입와인의 가격에 대해 인하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

수입맥주에 대해서도 한-미, 한-EU 관세 인하가 수입 맥주 가격에 반영이 되었다고 느끼는 사람은 22.0%에 불과했으며, 응답자의 절반 이상(65.4%)이 수입 맥주 가격이 비싸다고 응답했다.

향후 수입 맥주의 가격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는 조사 응답자의 71.9%(많이 인하 28.4%, 약간 인하 43.5%)가 인하되어야 한다고 응답해 소비자 대부분이 수입 주류의 적정 판매가격 책정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 결론

이번 조사결과, 특히 수입와인의 국내 판매가격이 외국보다 상당히 비싸고 대형마트, 전문판매점보다 백화점의 판매가격이 높게 나타나는 등 유통업체별 가격 차이 또한 큰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은 구매 전에 반드시 가격 비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입 주류 중 국내 평균 판매가격이 수입원가에 비해 3.4배~8.9배 높은 것으로 조사돼 유통마진이 높게 책정되었음을 알 수 있어 수입·유통업체들은 적정한 유통마진을 책정해 소비자 신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소비자 대부분이 한-미, 한-EU 관세 인하 효과가 수입 주류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미흡하며 가격 또한 비싸다고 인식하고 있어 FTA로 인한 관세철폐 및 관세 인하 효과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수입 주류 가격 구조가 좀 더 투명해질 필요가 있다. 📍

〈최애연/ 본회 소비자국장〉

식품첨가물에 관한 Q&A

‘식품첨가물이 우리 몸에 독이 되어 쌓인다’ 등의 말들이 인터넷과 입소문을 타고 퍼지면서 식품첨가물이 첨가되지 않은 ‘무첨가 제품’의 소비가 늘어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식품첨가물에 대한 이러한 잘못된 정보들이 국민의 불안을 부추기는 원인이 되고 있어 식품첨가물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다음과 같이 제공하고 있다.
식품첨가물에 대해 제대로 알고 똑똑하게 섭취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 ‘식품첨가물’이란 무엇인가요?

식품 제조시 보존, 착색, 감미 부여 등 다양한 기술적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사용되는 물질이다. 현재 국내 식품위생법에서는 식품첨가물에 대해 ‘식품을 제조·가공 또는 보존하는 과정에서 식품에 넣거나 섞는 물질 또는 식품을 적시는 등에 사용되는 물질’로 정의하고 있다.

식품첨가물은 우리나라에서 지난 1962년 식품위생법이 제정·공포되면서 식품첨가물 217품목이 최초로 지정되었으며, 매년 식품첨가물에 대한 기준 및 규격을 지속적으로 제·개정해, 현재 화학적 합성품 405품목과 천연첨가물 197품목 등 총 602품목의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을 각각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 식품첨가물은 왜 사용하나요?

식품첨가물은 보존료, 착색료, 산화방지제, 밀가루개량제 등 식품의 품질을 유지 또는 개선하고자 하는 용도로 사용된다. 예를 들면, 보존료 용도의 식품첨가물은 식품을 보존하는 동안 미생물에 의한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식품의 변질을 막는 보존료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유통과 보존기간이 단축되어 폐기되는 식량자원이 급증할 우려가 있다. 또한 식품 중 미생물 번식이 일어나 식품의 변질을 일으키고 이로 인해 식중독이 발생할 수 있다.

최근 식품회사에서 식품첨가물 무(無)첨가 제품을 출시하고 있지만, 이는 마케팅의 한 방법일 뿐이다. 국내 유통 중인 식품에는 안전성이 확보된 식품첨가물들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식품첨가물 무첨가 제품만이 안전하다는 건 잘못된 정보다.

◆ 화학적합성품과 천연첨가물의 차이는?

식품첨가물은 제조방법 또는 사용목적에 따라 분류된다.

우선 제조방법에 따라 분류하면 화학적합성품과 천연첨가물로 나눌 수 있는데, 화학적합성품은 동물·식물·광물 등 천연물이나 그 추출물을 원료로 하여 화학반응을 일으키거나 화학물질로부터 합성해 얻는다. 반면, 천연첨가물은 천연의 동식물 및 광물을 추출한 다음 첨가물로서의 유효한 성분만을 얻어

서 사용한다.

식품첨가물의 이러한 구분은 ‘화학적 수단으로 생겨난 물질’이라는 편견으로 자칫 천연첨가물보다 화학적합성품이 건강에 더 나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화학적합성품과 천연첨가물은 단순히 제조방법의 차이일 뿐 모두 안전성이 확인된 것이므로 안심하고 섭취해도 된다.

◆ 식품첨가물은 안전한가요?

식품첨가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안전성이 충분히 입증되어야 한다. 즉, 발암성은 없는지, 영·유아에게 해롭지는 않은지, 알레르기를 일으키지는 않는지 등 다양한 독성시험을 통해 과학적으로 안전성이 확인된 물질만을 허용하고 있다.

또한 식품첨가물을 섭취한 경우 어떻게 소화, 흡수, 대사되고 배설되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 식품첨가물의 안전성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식품첨가물의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해당 물질의 화학적 특성, 제조방법, 분석방법, 식품과의 반응성, 용도, 독성시험 결과 등이 필요하다. 독성시험에는 반드시 대사특성, 아만성독성, 만성독성, 발암성, 유전독성, 발생독성 및 기타 독성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만 한다. 이러한 과학적 데이터를 근거로 인체안전기준치인 1일섭취허용량(ADI) 이내로 섭취 시 안전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 식품첨가물을 위험할 정도로 과량 섭취할 수도 있는 건가요?

식품첨가물에 대한 섭취량을 평가할 때 사용대상 식품 별로 최대 사용된 양과 더불어 이러한 식품들을 하루에 과량 섭취하는 것까지도 고려하여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 평가하더라도 식품을 통해 섭취하는 식품첨가물의 양이 1일섭취허용량(ADI) 이내일 경우에는 해당 식품첨가물의 사용이 안전한 것으로 평가된다.

◆ 소비자들이 식품 중 식품첨가물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소비자들은 식품의 표시사항을 통해서 제품에 사용된 식품첨가물을 확인할 수 있다. 현행 「식품등의 표시기준」에서는 식품에 사용된 식품첨가물의 명칭, 용도 등을 표시토록 규정하고 있다.

◆ 안전한 식품첨가물, 올바르게 섭취하는 방법은?

특정 가공식품만 지속해서 다량 섭취하면 영양불균형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편식하지 않고 여러 가지 식품을 골고루 먹으며 채소나 과일 같은 신선 식품의 섭취를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가공식품을 섭취할 때는 식품 성분표시를 꼼꼼하게 읽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식품첨가물이 사용된 가공식품의 포장재에는 현행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식품첨가물의 명칭, 용도 등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식품의 표시사항을 통해 제품에 사용된 식품첨가물을 확인할 수 있다.  〈자료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새롭게 떠오르는 소비자 ‘블루슈머’ 6

아직 잘 알려지지 않아 경쟁자가 없는 시장을 ‘블루오션(Blue Ocean)’이라고 한다. 이 블루오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새로운 것을 찾아 소비하는 사람들 또한 등장하고 있다. 이들을 ‘블루슈머(Bluesumer)’라고 부른다. 통계청은 지난 2007년부터 매년 주목해야 할 소비층을 ‘올해의 블루슈머’로 선정, 발표해왔다. 올해 선정된 신소비자 계층 ‘블루슈머’를 알아보자.

1. 꽃보다 누나

경기 침체에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고 있지만 자신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는 투자를 아끼지 않는 가치형소비가 마케팅의 주목을 받고 있다. 그 중심에 ‘루비족’ 또는 ‘골드퀸’이라고 불리는 4050여성들이 있다.

평범하고 전통적인 아줌마이길 거부하고 아름다움과 젊음을 위해서 과감히 투자하는 중년 여성 소비자들을 ‘꽃보다 누나’로 표현하고 있으며, 이런 중년 여성들을 위한 패션브랜드나 갱년기 완화식품 등이 관심을 받고 있다.

이 밖에도 중년 여성들과 비슷한 연령대의 배우들이 등장하는 공연 등도 큰 인기를 얻고 있다.

2. 과거 지우개족

인터넷이 본격적으로 도입된 지 20여년, 이제 인터넷이 없는 생활은 상상하기조차 힘들다. 인터넷은 우리의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고 있지만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그 중 개인정보 침해의 문제는 기업과 개인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과거 지우개족은 개인정보 보호와 잊힐 권리를 중요시하여 과거 인터넷 사용 흔적을 찾아 정리하기 원하는 소비자들이다.

이런 요구에 발맞춰 메시지를 확인한 후 일정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휘발성 SNS가 생겨났고, 오래된 게시글을 삭제하거나 관리해주는 ‘디지털세탁소’, 사망한 고인들의 인터넷 계정, 접속기록, 콘텐츠 등을 삭제해주는 ‘디지털 장례식’이 등장해 서비스를 하고 있는 중이다.

3. 스몰 웨딩족

결혼비용의 거품을 빼기 위해 가짓수를 줄이고 실속은 높인 웨딩문화가 젊은이들 사이에서 호응을 얻고 있다.

‘스몰 웨딩족’은 부담 가는 결혼 대신 알뜰한 결혼식을 원하는 사람들로, 지난 해 가수 이효리씨의 알뜰한 결혼식이 알려지면서 크게 화제가 되었다. 이처럼 알뜰한 결혼을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 최근에는 작은 웨딩을 전문으로 하는 사회적 기업도 등장했고, 작지만 실속 있는 인테리어를 해주는 서비

스가 관심을 끌고 있다.

4. 견우와 직녀

통계청 자료(2010년도 기준)에 의하면, 결혼은 했지만 배우자와 떨어져 사는 이른바 ‘기러기 가구’는 115만가구로, 이는 전체 결혼 가구의 1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직장 등의 이유로 가족과 떨어져 혼자 살아야 하는 사람들을 ‘견우와 직녀’라고 일컬을 수 있다.

최근 혼자 생활해야 하는 사람들인 견우와 직녀족을 위해 모든 생활가전 가구가 구비된 소형 주거형태인 ‘코쿤하우스(Cocoon House)’가 주목을 받고 있으며, 국과 반찬을 배달해주는 사업도 꾸준히 성행할 것으로 보인다.

5. 반려족

애완동물이 단순히 사랑하는 동물을 넘어서 삶의 동반자, 반려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외로움이 시대정서인 현대사회에서 ‘또 하나의 가족’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국내에서 1,000만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사람, 즉 ‘반려족’이 천만명을 넘으면서 관련시장 규모도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

최근에는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용품과 서비스가 점점 더 차별화, 고급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반려동물 사망 후 장례를 치러주는 서비스도

등장했다.

6. 배려소비자

일상생활에서 끊임없이 소비생활을 하는 우리는 어느새 내가 과한 소비를 하고 있는지, 내가 구입하고 이용하고 있는 상품과 서비스가 환경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지는 않은지, 비윤리적인 기업의 제품을 구매하고 있는지 걱정을 하면서 살고 있다.

최근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공익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리활동을 하는 사회적 기업이 환경, 보건, 문화,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차별화된 마케팅으로 주목 받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사회적기업 A사는 일회용 현수막, 광고판 등을 재활용해 쇼핑백, 지갑, 신발 등 친환경 패션 소품을 제작해 판매하고 있고, IT분야 사회적기업 B사는 사용자가 스마트폰 게임 등으로 가상 나무를 키우며 각종 게임 속 도구를 구입하고, 기업은 물뿌리개나 비료 등 게임 속 아이템을 통해 광고하게끔 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을 운영 중이다. 가상 나무가 충분히 키워지면 기업의 광고비로 실제 숲을 조성한다. 국내외에 조성된 숲은 현지 시민단체가 관리한다.

이렇게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 제품을 소비하려는 사람들, 즉 ‘배려 소비자’들이 늘고 있으며 이들은 관련 제품을 소비하면서 사회에 공헌하고 있다는 느낌을 갖는다.

〈자료제공: 통계청〉

뜨거운 지구를 식혀주는 '녹색커튼'

벌써부터 올 여름 폭염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가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한다. 최근 전국의 지자체를 중심으로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녹색커튼' 사업이 지구 온난화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오색 빛 찬란한 커튼 대신 '녹색커튼'을 도입하는 이유 및 효과 등을 알아보고 올 여름 녹색커튼을 만들어 보자.

지구 온난화 대응사업으로 '녹색커튼' 조성

녹색커튼은 200년 일본에서 본격화된 사업으로 창문을 통과하는 빛 투과율을 낮추기 위해, 창가에 나팔꽃, 고구마 등의 덩굴식물을 심는 것을 말한다.

담쟁이를 비롯한 덩굴식물은 콘크리트 옹벽이나 담장을 덮어 직사광선을 차단, 대기 중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를 흡수해 기온 급상승을 감소시켜 준다.

현재 국내에는 최초로 벽면녹화사업을 통해 녹색커튼을 추진한 서울시 성동구를 비롯해 천안시 성환읍, 인천시 부평구 등 전국 20여 지자체가 공공기관을 비롯해 학교 등 창문에 녹색커튼을 설치했다.

최근에는 전국 각 지자체는 공공기관 청사를 중심으로 경쟁적으로 녹색커튼 사업을 추진 중이며, 청사 외벽에 무성하게 조성된 녹색커튼

은 무더운 직사광선을 차단해 냉방비 절감과 함께 청사를 찾는 민원인들에게 싱그러움과 이색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대도심에서는 녹색커튼 효과는 더욱 극대화된다. 도심 열섬현상으로 심각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대도심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최근 부각되고 있는 이른바 '도시농업'과 유사한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도 도심 열섬화 현상을 감소시킬 수 있는 대안으로 녹색커튼을 제시하기도 한다.

'녹색커튼' 설치한 건물, 일반 건물보다 실내온도 낮춰 에너지 10% 절감 효과

그렇다면 녹색커튼을 설치했을 경우는 어느 정도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 덩굴식물이 커튼을 대신해 실내로 들어오

는 직사광선을 막아주는 녹색커튼의 가장 큰 특징은 과학의 기본인 광합성 작용이다. 식물이 광합성 작용을 하면서 물을 증발시키게 되는데 증발하면서 주변의 온도도 같이 빼앗아 간다는 것은 이미 잘 아는 사실이다.

최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진행한 실험에 따르면 녹화벽면 즉 녹색커튼을 한 건물과 규모와 용도가 같은 일반 건물간의 실내 온도를 확인한 결과 두 건물의 실내온도는 3℃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녹색커튼을 통해 일반 건물보다 5~10% 이상의 에너지를 절감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지자체를 중심으로 앞 다퉈 녹색커튼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녹색커튼 어떻게 꾸미면 좋을까?

녹색커튼에 주로 사용되는 식물은 앞서 말한 듯 덩굴식물이다.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담쟁이와 나팔꽃. 특히 나팔꽃의 m²당 연간 3.5kg의 이산화탄소 흡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실험결과도 속속 나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건물과 도시경관을 개선하고 여름철 강한 태양광 차단을 통해 실내 온도 상승억제 효과로 에너지 절약 효과가 기대된다.

일부에서는 여주를 비롯해 과수가 열리는 식물을 선택하기도 한다. 절감 및 환경보호 등 1차적인 효과 이외에 과실 생산이라는 2차 효과

까지 얻을 수 있는 셈이다.

지난 여름 기록적인 폭염에 시달렸다면 한번쯤 녹색커튼을 만들어 보겠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한 일반가정에서는 지금부터 계획을 잘 세워야 할 것이다.

주변과 잘 어울리는 식물은 어떤 것이 좋을 것이며, 과실 열리는 식물로 할 것인지, 도심경관을 아름답게 해줄 식물로 택할 것인지 진지한 고민을 해야 한다.

식물 재배에 어려움이 있는 아파트도 너무 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듯하다. 베란다를 이용해 녹색커튼을 설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기 때문이다.

〈글 : 채민선 기자 (에너지관리공단)〉

에너지절약은 'LED 조명'으로!

화장실, 현관 등에 흔히 설치되어 있는 백열전구는 효율이 가장 낮아 에너지낭비를 유발하므로 에너지소비가 적은 안정기내장형램프(전구식형광등), LED 등으로 교체 해주세요!

특히 LED 조명의 장점은

- 기존 조명에 비해 최대 80%까지 전기절감이 가능
- 긴 수명에 따른 유지 보수비용의 절감
- 무수은 광원, CO₂, 자외선, 전자파의 배출이 적어 안전함

알뜰폰, 가입시 계약조건 꼼꼼히 확인하세요!

‘공짜폰 유인 후 단말기 대금 청구’ 등 소비자피해 많아

알뜰폰 관련 소비자상담 분석 결과, 가입시에는 기기 대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공짜폰이라고 안내 받았지만 실제로는 단말기 대금이 청구됐다는 ‘공짜폰 유인 후 단말기 대금 청구’가 40.8%로 가장 많았으며, ‘가입해지 관련 불만’, ‘약정기간 및 요금상이’, ‘고객센터 연결 불편’ 순으로 나타났으며, ‘60대 이상 고령층’이 10명 중 6명 꼴로 어르신들이 피해가 상당수 차지했다.

한편, ‘알뜰폰 사업자를 이동통신 3사(SKT, KT, LGU+)로 오인해 가입했다’는 불만이 27.6%로 나타나 가입자 모집단계에서 업체에 대한 정보가 보다 확실하게 제공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명칭이 유사하고 동일한 통신망을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알뜰폰 사업자는 이동통신 3사와는 전혀 다른 사업자이므로 통신사 변경시 이전에 가입한 서비스 멤버십 등 기존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소비자 불만이 생기고 있다.

소비자 주의사항

■ 가입 시 반드시 계약서를 요청한다

이동전화서비스는 요금 체계 및 약정 방식이 복잡·다양하여 가입 시 단말기와 요금제, 부가서비스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대리점 직원 또는 텔레마케터의 설명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텔레마케팅(TM)을 통한 구매 시에는 사업자에게 구두로 설명한 내용을 적은 서면 계약서 교부를 요청해 우편, 이메일로 받거나 주요 계약내용은 핸드폰 문자메시지로 전송받는다.

■ 계약서의 단말기 대금, 약정기간, 요금제 등 중요한 내용을 확인한다

계약서(가입신청서)를 교부받은 후 계약서상 단말기 대금, 약정기간, 요금제, 위약금을 꼼꼼히 확인하고 당초 계약내용과 다른 경우 즉시 이의를 제기한다.

■ 가입하려는 통신사를 정확하게 확인한다

알뜰폰 사업자는 기존 이동통신사의 이동전화 회선을 임대하여 가입자를 모집하고 자체적으로 고객관리, 요금부과 업무 등을 하는 별정통신사업자로서 이동통신 3사와는 별개인 통신사임을 인지하고 가입하려는 통신사를 정확하게 확인한다.

■ 통신사 이동에 따른 변경사항을 확인한다

알뜰폰서비스 가입 역시 통신사 이동에 해당되어 기존에 가입한 이동통신사에서 받았던 혜택은 중단되므로 통신사 이동에 따른 서비스 내용 변경사항을 확인한다.

〈내용출처: 스마트컨슈머〉



향이 강한 건강식품, 마늘

연중 내내 어떤 음식에서도 빠지지 않는 마늘.

최근 남해군농업기술센터가 마늘이 중국발 미세먼지에 큰 효과가 있다고 밝혀 눈길을 끌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슈퍼푸드로 자리 잡고 있다. 매운 맛과 특유의 향을 가진 마늘의 효능을 알아보자.

마늘의 대표성분 알리신, 활력충전 식품

누가 마늘을 먹으면 바로 알아차릴 수 있을 만큼 그 향이 강한 마늘. 서양인은 치즈를 즐겨먹고 동양인은 마늘을 즐겨 먹어 체취가 다르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마늘을 많이 사용하는 동양인에게도 역시 마늘 냄새는 친숙해지기 어렵다.

마늘 특유의 냄새는 유황성분이 알리신 때문인데, 마늘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랑받는 이유도 바로 이 성분이 있어서라니 마늘 냄새를 마냥 미워할 수 없다. 친숙한 마늘과 낯선 알리신, 예로부터 지극한 사랑을 받아온 이유는 마늘이 생활에 활력을 더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본초강목〉에는 강장효과가 있다고 기록되어 있고 고대 이집트에 피라미드를 쌓던 노예의 체력관리에도 마늘이 사용되었다고 하는 등 과학적 근거가 있는 사실이라고 한다. 체내에서 비타민B1과 결합하면 에너지생성을 촉진하고 신진대사를 돕는 효과를 주는 알리티아민으로 변한다. 그래서 마늘은 육류와 섭취하면 더욱 좋다.

각종 성인병에도 마늘만한 게 없어요!

미국 국립암연구소(NCI)에서는 식물성 식품 중 가장 항암 효과가 좋은 식품으로 마늘을 꼽았다. 하루에

생마늘이나 익힌 마늘 한 쪽 정도를 꾸준히 먹어주면 암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준다.

생마늘은 그냥 먹기 힘든 경우 구워 먹는 것도 한 방법이다. 구워도 영양가가 그대로 있을 뿐 아니라, 마늘 특유의 톡 쏘는 맛이 사라져 먹기도 훨씬 좋고 소화도 더 잘 된다.

폴리페놀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흑마늘의 인기 역시 날이 갈수록 치솟고, 살균작용을 하여 각종 요리에 고명으로 쓰인다. 쌀독에 마늘을 껍질 채 넣어두면 쌀벌레가 사라진다고 하니 주방 곳곳에서 마늘이 사용되고 있다.

좋은 마늘, 이렇게 고르면 더 좋아요!

통마늘을 고를 땐 크기와 모양이 균일하게 단단한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마늘 전체를 감싼 껍질은 얇고, 한 알씩 싸고 있는 속껍질은 연한 자주 빛을 띠는 것이 좋다.

통마늘은 습기가 많은 곳에 보관할 경우 곰팡이가 피거나 썩기가 쉬워 주의가 필요하며, 통풍이 잘되고 햇빛이 잘 드는 곳에 두면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다. 물론 너무 마르면 맛이 없어지니 빨리 먹는 것이 좋다. 깎은 마늘은 밀폐용기에 넣어 냉장 보관하고, 냉동 보관할 경우 더 오래 두고 먹을 수 있다.

〈내용출처: 농식품정보누리〉

소비자의 소리

인터넷 구매한 의류, 부당한 이유로 반품 거절해

상담 소비자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스커트를 구매한 후 사이즈가 작아서 반품 요청을 위해 해당 쇼핑몰에 전화를 했으나 계속 전화연결이 안됐고, 배송 받은 지 7일째 전화연결이 되어 반품을 요청했다.

인터넷 쇼핑몰측은 반품은 배송일로부터 7일 이내에 업체로 물품 배송완료 되어야하기 때문에 반품이 불가하다고 하여 소비자가 상담을 요청했다.

처리 전자상거래법에 의해 인터넷으로 구매한 물품의 반품기간은 배송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품 훼손 없을 시 소비자가 반품의사를 해당업체에 통보하면 반품이 가능하도록 되어있다.

소비자 경우 7일째 되는 날 반품 의사를 해당 업체에 알렸기 때문에 반품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해당 업체측에 관련 규정을 알리고, 반품 거절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다.

인터넷쇼핑몰 측에서 부당한 반품 규정을 시정하고, 소비자가 반품 요구한 해당 의류를 반품해주는 것으로 처리되었다.

통신결합상품 계약과 달라서 해지하니 대납위약금 청구해

상담 소비자가 인터넷과 TV, 인터넷전화를 사용하던 중 전화권유로 이전 통신사에 위약금을 대납해주고 상품권을 증정한다는 조건으로 A 통신사로 변경을 권유받고 동의했다.

상담원이 확인 후에 인터넷전화는 그대로 쓰는데 낫겠다고 해서 인터넷전화만 다른 통신사 사용시 문제없는지 문의하니 와이파이가 가능해서 문제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통신사 교체 후 인터넷 전화가 안되어 확인해보니 와이파이가 안 잡히고 다른 집 신호를 받아서 통화가 잘 안 되는 상황이었다.

소비자가 변경한 통신사에 계약해지를 요구하니 해지 위약금은 면제되나, 이전 통신사에 대납한 위약금을 청구하여 상담을 요청했다.

처리 결합상품 권유를 하면서 인터넷전화의 통신사 별도 사용에 문제없다는 전제로 소비자가 통신사 변경에 동의했지만, 이후 와이파이 등의 문제로 인터넷 전화를 사용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이전

통신사에 위약금을 부담하고 해지할 이유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 대납한 위약금을 소비자에게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해당 통신사 측에 대납한 위약금 면제를 요구했다.

이에 A 통신사측에서 위약금을 부담하기로 하여, 소비자는 통신 이용료와 변경 시 받은 사은품을 반환하고 해지하는 것으로 처리했다.

고시원 이용계약 취소하니 환불 거부해

상담 소비자는 고시원 한 달 이용 계약을 하고 비용을 지급했다. 입실한 지 하루 만에 소비자의 사정으로 계약취소를 하게 되어 환불을 요청하니, 고시원측은 다른 사람이 들어올 때까지 환불을 해줄 수 없다고 하여 소비자가 상담을 요청했다.

처리 고시원 운영업에 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소비자의 사유로 인해 계약 해지 시, 개시일 이전에 취소할 경우 총 이용요금의 10%를 공제한 금액을 소비자에게 환불하고, 개시일 이후에 취소할 경우 총 이용금액에서 계약 해지일까지 일할 계산한 이용료와 잔여 이용금액의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소비자에게 환불해주도록 되어 있다.

이에 해당 고시원에 소비자 규정을 알리고 환불을 요구했고, 고시원측에서 관련 규정대로 하루 이용금액과 남은 기간 금액의 10%를 제외한 금액을 소비자에게 환불해주는 것으로 처리되었다.

게스트하우스 예약 취소하니 업체의 불공정한 약관대로 처리해

상담 소비자는 게스트하우스에 하루 숙박을 예약하고 이용요금을 계좌로 입금했다.

이후 이용 예정일 3일전에 개인사정으로 취소 요청을 하자 게스트하우스 측에서 홈페이지에 환불규정이 고지되어있기 때문에 고지대로 총금액의 50%만 환불해준다고 하여 소비자가 상담요청을 했다.

처리 게스트하우스는 숙박시설의 하나로 여행객을 대상으로 객실과 공동시설을 저렴하게 제공하는 숙소형태이다.

해당 업체의 홈페이지에 계약해제에 대한 개별약관이 고지되어 있으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숙박업에 해당되어 소비자의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시에 사용 예정일 2일전까지 취소할 경우 계약금을 환불받을 수 있고, 사용 예정일 1일전까지 취소할 경우 총 요금의 20%를 공제하고 환불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해당 업체에 소비자의 경우 사용 예정일 3일 전에 취소하여 결제 금액 환불이 가능한 경우이며, 소비자에게 불리한 개별약관은 부당 약관임을 알리고 환불을 요청했다.

게스트하우스 측에서 소비자피해보상 규정대로 소비자가 지불한 금액을 소비자 계좌로 환불해주기로 하여 처리되었다. 

〈김영란/ 본회 소비자상담 실장〉

몰래 주는 사랑

김 미 수 / 소설가

시골길을 걷다말고 잠시 몸을 구부려 길가에 핀 들꽃을 들여다본다. 손톱만큼 작고 양중맞게 생긴 노란 꽃이 유난히 눈에 띈다. 가느다란 줄기에 서너 송이씩 피어난 꽃은 애기똥풀이다.

부모님이 몰래주는 사랑'

애기똥풀의 꽃말은 그러하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애기똥풀 이야기가 떠오른다. 갓 태어난 새끼 제비의 눈에 이물질이 들어가자 어미 제비가 애기똥풀의 줄기를 입으로 꺾어왔다. 줄기에서 나온 즙으로 아기 제비의 눈을 씻겨주자 아기 제비는 눈을 제대로 뜰 수 있었다는 이야기다. 나는 애기똥풀의 가치를 분질러 손가락으로 문질러본다. 애기 똥같은 노란 즙이 이상하게도 애잔하게 느껴진다. 그러자 어젯밤 있었던 일이 떠오른다.

어제는 토요일 밤이었다. 나는 모처럼 남편과 한가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런데 남편의 휴대폰으로 전화가 들어왔다. 남편이 휴대폰을 켜자마자 여자의 고성이 들려왔다. 옆에 앉아있던 내게도 그 목소리가 고스란히 들려왔다. 여자는 흥분하여 훌쩍이는 것 같았다. 남편이 갑작스런 전화에 찢찢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당장 가보겠습니다.”

남편이 전화를 끊자마자 방으로 들어가서 옷을 갈아입더니 곧장 차 키를 집어 들고 신을 신었다. 도대

체 무슨 일이냐고 나는 물었다. 남편은 다녀와서 말해주겠다고 말하며 그대로 현관을 나섰다.

11시가 다 되어서야 남편이 돌아왔다. 남편의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다. 대뜸 냉수를 한 잔 다 마신 뒤 소파에 앉았다.

“누군데 밤늦게 불러내요?”

“거래처 사모님인데, 그 집 딸이 이 아파트에 사는 친구 집에 놀러왔나 봐.”

“그래서요?”

“내가 같은 아파트에 사는 게 생각나서 전화했대. 자기 딸을 그 집에서 데리고 나와서 택시에 태우거나 내가 집으로 좀 데려와 달라는 거야.”

“딸한테 직접 오라고 말하거나 그 집 엄마한테 부탁하면 될텐데…….”

“친구 엄마가 재우고 내일 보내겠다고 했다는 거야. 그래서 전화를 붙들고 두 엄마가 싸웠대. 아깐 흥분해서 내게 전화한 거고.”

“남의 집 딸을 친구 엄마가 왜 안 보내줘요?”

남편이 들려준 대답은 이러했다.

거래처 사모님의 딸은 고등학생인데 오늘 중간고사가 끝났다고 한다. 모처럼 친구 집에 놀러간 그 집 딸은 아예 핸드폰을 꺼놓고 놀았다고 했다. 노는 것이 너무 재미있었던 그 집 딸은 친구 집에서 놀다가

내일 가겠다고 전화를 했던 모양이다. 그러자 당장 집에 오라는 명령이 떨어졌고 그 말에 딸과 그 친구 엄마가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그래서 그 집 딸을 데려다주고 왔어요?”

남편은 고개를 저었다.

남편이 찾아가서 거래처 사모님의 딸을 데리러 왔다고 말했지만 문전박대를 당했다고 한다.

“아무리 딸이라고 해도 그 엄마 정말 너무해요. 하루 네 시간 이상 못 자게 하면서 더 자면 옆에 지켜 앉아서 꼬집는다니 말이 되요? 아이의 팔에 멍 투성이더라고요. 그러니 지금 돌려보내면 밤새 얼마나 괴롭힘을 당하겠어요? 그러니 오늘만이라도 우리 집에서 편히 쉬게 해서 보내줬다는데 그걸 못 받아들이니…….”

그렇게 말한 뒤 문을 닫고 남편을 쫓아냈다고 한다. 남편은 이리지도 저리지도 못하고 그 집 문 앞에 있다가 일층으로 내려왔다고 한다. 그런데 일층에서 경찰을 만났는데 그 집의 딸을 데려다 달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는 것이다. 지금쯤 경찰이 집에 데려다줬겠지. 남편이 덧붙였다.

“그게 자식 사랑인가?”

남편은 내 얼굴을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방으로 들어갔다.

나 역시 아들을 잘 키워보겠다고 극성을 떨던 엄마였다. 그 시절, 나는 천안에 살고 있었다. 아들을 특목고에 보내겠다고 강남으로 영어학원에 보냈다. 중3이던 아들은 학교 수업이 끝난 저녁마다 천안에서 강남으로 가는 고속버스를 타야했다. 하루는 아들이 몸살이 나서 온몸에 열이 펄펄 끓는데도 해열제를 먹여서 기어코 강남 가는 버스에 태워 보낸 적도 있었다. 그러니 딸을 경찰을 동원해서라도 집으로 데려갔던 사모님이나 나나 극성스러움은 크게 다른 것 같지

않았다.

나는 남편을 뒤따라 들어가지 못한 채 티비를 보고 있었다. 티비에는 세월호에 대한 뉴스가 이어지고 있었다. 세월호에 탔다가 희생된 아이들은 대부분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었다. 모처럼 놀아도 된다는 허락을 받고 수학여행을 떠났던 길이었다. 우리의 아이들은 놀면서도 죄책감을 느끼는 것이 현실이니 그날 아이들은 모처럼 얼마나 자유로운 기분으로 세월호에 탔을 것인가. 티비 화면에 비치는 세월호 참사를 보면서 가장 가슴 아픈 것은 아이들이 마음껏 자신의 시간을 즐겨보지 못하고 희생되었다는 점이었다.

나는 길가의 애기똥풀을 보면서 계속 걷는다. 그러면서, 몰래주는 사랑, 이라는 말을 중얼거려본다. 밤늦게 경찰의 손의 끌려서 집으로 돌아갔을 그 딸의 얼굴이 떠오르고 수학여행 길에 세월호에서 죽어간 아이들의 얼굴도 떠오른다.

어쩌면 엄마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은 몰래 주는 사랑이 아닐까. 아이가 있는 그 자리에서, 그 순간 가장 행복하게 지내기를 기도하는, 보이지 않는 사랑 같은 것 말이다. ❀

작가 소개



성신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2010년 동아일보 신춘문예 단편소설 〈미로〉등단, 2013년 제1회 직지문학상 장편소설 〈소설직지〉대상 수상.



이준반(주부대학동문회 부회장)

체험을 통해 전통 맛과 친환경 먹거리의 소중함 다시 깨달아

5월 21일 화창한 날씨에 설레는 마음으로 서울을 출발하여 전북 장류로 유명한 순창으로 향했다.
달리는 차창으로 펼쳐지는 아름다운 산과 들, 실록의 싱그러움을 느끼며 4시간을 달려 목적지 순창군
건강장수연구소에 도착하여 여정을 풀고 시골 밥상의 진미를 느끼며 행복한 점심 식사 후 찾은 곳이 강촌 산.
맑은 공기를 마음껏 마시며 오르는 중 2개의 폭포의 장관을 어찌 말고 표현할 수 있으리오.
아름드리나무들이 우거져 터널을 이루어 내려 쏘이는 햇빛을 막아 주는 등 아름다운 자연환경에 떠지는 함성과
회원들은 저마다 아름다운 경치를 놓치기라도 할세라 스마트폰에 담기에 분주했다.

웃음과 탄성의 연속으로 산행을 마치고 유기농
딸기 농장에 도착하니 시골 농부의 아내라고 하기에
는 너무 멋지고 세련된 분이 유기농을 하게 된 동기
와 거듭되는 실패로 국민의 건강을 위해 연구의 연
구를 거듭하여 여기까지 오게 된 경위를 말 할 때에
는 고마움의 큰 박수를 보냈다.

직접 딸기 밭으로 들어가니 비료, 농약의 맛도
못 본 딸기포기 답지 않는 우량아였다. 포기 사이마
다 예쁜 빨간색의 동글동글하고 반질반질한 딸기들
이 수줍은 듯 방긋이 웃으며 우리를 맞는다. 이렇게
예쁜 딸기를 따서 입에 넣기가 조심스럽고 미안하지
만 살며시 따서 입에 넣으려니 '우리는 비료나 농약
을 먹지 않고 자랐으니 안심하고 드세요' 라고 귓속
말로 속삭이는 듯하다. 당도도 높고 맛깔 나는 딸기
를 입에 넣고 허리를 펴고 딸기 밭을 보는 순간 주
인의 사랑을 마음껏 받고 자란 딸기 포기들이 무한

행복해 보이는가 하면 딸기를 따는 회원들 이마에는
땀 방울이 맺혔지만 저마다 형형색색의 감사와 행
복을 직감할 수 있다.

자기가 딴 한 팩의 딸기를 손에 들고 딸기 농장
부부와 작별하며 아쉬움을 뒤로 하고 돌아와서 저녁
레크리에이션 시간, 천진난만한 동심으로 돌아가
마음껏 응원하고 박장대소를 할 때 즐거움이 샘솟는
시간이었다.



다음날 이른 아침 안개가 자욱한 산책로를 따라
삼삼오오 짝을 이어 왁자지껄 걸으면서 솔내음, 두
릅, 원추리, 고사리, 예쁜 열매로 아름다운 복분자
등과 오순도순 속삭이며 맑은 공기로 심호흡 행복지
수는 100%다.

귀농과 영농을 비롯한 참 좋은 순창의 여러 가지
사업계획을 들으며 조금만 젊었으면 이곳에 와서 등
지를 틀고 싶어진다.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먹을거리이기 때문에 옷, 보석 등에 투자하던
것을 질 좋은 먹을거리에 투자하는 마인드로 전환해
야 무병장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녹황색 과
일 채소를 다량 섭취를 권유 받았다. 빨간색 채소는
혈액순환, 노란색 채소는 소화촉진, 면역력 강화 등
을 돕는다고 하며 노화는 20세부터 진행된다는 사
실도 알게 되었다. 전문적인 것은 다 습득 못해도 먹
을거리의 중요성과 녹황색 채소와 유기농 과일 섭
취로 건강을 지켜야 됨을 한 번 더 돌아보는 시간이
었다.

고추장, 인절미, 고추장 피자 등 순창을 대표하
는 전통발효식품을 직접 만드는 요리시간은 또 하나
의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직접 떡메로 쳐서 만든 인
절미. 콩고물의 고소한 맛과 인절미의 쫄깃쫄깃한
맛이 어우러져 그 맛이 일품이었다. 특산물 매장에
서 이것저것 사서 양손에 들고 함박웃음으로 행복해



하는 모습은 누가 가져다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만
들어야 되며, 큰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비우고 버
리면서 작은 것에 행복할 수 있어야 함을 느낀다.

연구원님들과 마지막 작별의 인사를 나누며 순
창군의 발전을 기원하며 삶의 질은 높은 1박 2일의
체험활동을 무사히 마쳤다는 안도감으로 서울에 도
착. 올망졸망한 꾸러미들을 등에 미고 손에 들고 사
랑하는 내 가족이 있는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가
벼웠다.

이번 기회를 만들어 주신 중앙회 회장님, 담당
국장님께 체험단을 대표해서 감사의 마음을 드리며
전국주부교실중앙회 주부대학을 선택한 것이 내 평
생 제일 잘한 선택이었다고 자부하며 여러분의 남은
생을 감사와 봉사, 나눔을 생활화하는
동문이 되기를 기대
합니다.



내가 깨달은 ‘청렴한 세상’

본회 대전광역시지부에서는 자라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렴의 중요성과 청렴의식 확산을 위해 관련 교육, 의식도 조사, 글짓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해 대전 지역 내 초등학교 5,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에서 청렴한 나를 키우기>란 주제로 청렴 글짓기 대회를 개최했고, 심사를 거쳐 수상작을 선정해 9월 26일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 발표회를 가졌다.

다음은 대상(대전광역시교육감상)을 수상한 최윤용(샘머리초등학교 6-2반) 학생의 글이다.



엄마, 아빠. 이것 좀 보세요. 우리들은 지금까지 큰 돈을 벌었네요!”

우리 가족은 언니가 보여주는 인터넷 뉴스를 보며 깜짝 놀랐다.

요즘 학생들은 임원선거에 나올 때 많은 돈이 들고, 심지어 어떤 학생들은 공약을 만들어 주고 연설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학원에 찾아가 도움을 받는다는 내용이었다.

나는 얼마 전 나에게 일어났던 많은 일들이 떠올랐다. 연년생인 언니는 3학년 때부터 임원이 되었는데, 전교부회장에 이어 전교회장이 되었고 언니가 부러워하던 나는 어떻게 하면 임원이 되는지 물어보

곤 했다. 언니는 “임원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임원이 되고 나서가 더 중요해”라고 하며 전교 임원 선거에 나갔을 때가 가장 힘들었다고 말해주었다. 남자 후보들이 언니의 선거 포스터를 몰래 찢어서 버리고 선거운동을 하러 다닐 때 “우~” 하는 소리를 내며 따라다녔다는 것이었다.

나는 그동안 언니가 쉽게 당선되었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런 많은 일들을 겪었다는 것이 놀라웠고 언니 스스로 잘 이겨냈다는 것이 대단하게 생각되었다.

나는 6학년이 되어 전교회장 선거에 나갈 수 있었다. 내가 전교회장 선거에 나가면서 나 스스로에게 다짐한 것이 있다면, 첫째, 어떤 일이 있어도 공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둘째, 다른 후보를 배려하며, 셋째, 친구들과 약속을 한 것은 꼭 지킨다는 것이었다.

후보 등록을 마치고 친구들과 함께 모여 공약을 만들었다. 내가 친구들과 만든 공약은 세 가지였는데 음악이 흐르는 학교, 알뜰장터를 여는 학교, 재미있는 학교를 만들겠다는 것이었다. 친구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들으니 내세울 공약도 많아지고, 그 공약을 세우게 된 이유도 많아졌다. 또 남자친구들이 있으니 여자들만 있으면 생각하지 못할 ‘남자들이 좋아하는 축구나 야구 등 여러 가지 운동을 하자’는 색다른 의견이 나와 남자, 여자들의 의견을 모두 들을 수 있어 보람이 있었다.

여자 운동원들은 누구나 따라 부르기 쉬운 노랫말에 구호를 연결하여 동작을 만들었고, 남자 운동원들은 퍼포먼스를 만들어 멋진 동작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이 마치 축제를 준비하는 것 같이 즐거웠다.

선거운동이 시작되자 예상했던 것처럼 다른 후보의 선거운동원들이 매우 적극적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한 아이는 나에게 ‘왜 전교회장선거에 나왔냐’, ‘너 같은게 왜 나와서 분위기를 깨냐’, ‘최윤용 망해라’ 같이 나를 무시하는 말을 했다. 하지만 나는 그런 친구를 무시하는 말이나 욕을 쓰지 않고 정정당당하게 선거운동을 하였다.

나는 나를 위해 선거운동을 해주는 남자 친구들이 걱정이 되었다. “너희들 혹시 여자 후보를 지지한다고 놀리는 친구들 있으면 어떻게 하니?” “다른 후보들이 되고 떨어지면 미안해서 어떻게 하지?”

친구들은 “이것은 정당한 선거인데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가 다를 수도 있는 것이니까 상관이 없다”며 걱정하지 말라고 하였다.

또, “선거 과정에 직접 스스로 참여해보는 것이 무척 보람있다.”며 결과에는 신경 쓰지 말라고 나를 격려하여 주었다. 나는 선거운동을 하면서 친구들의 진심을 알게 되어 매우 기뻐다. 모두 세 명의 후보 중 내가 가장 불리한 상황인 것을 우리들은 모두 알고 있었지만 나와 친구들은 선거가 끝날 때까지 즐거운 마음으로 지낼 수 있었다.

선거가 끝나고 우리들의 생활은 다시 평범한 생활로 돌아왔다. 나는 전교회장과 전교부회장이 된 친구들에게 마음으로 축하하는 인사를 하였다. 선거 결과가 끝나고 주말에 선거 운동을 같이 하던 친구들과 만났는데 다 같이 편안하게 웃는 얼굴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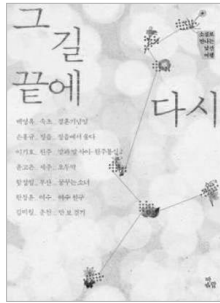
학교에서 ‘공정, 책임, 정직, 절제, 배려, 약속’은 나와 같은 초등학교생들이 실천할 수 있는 청렴 덕목이라고 배웠다. ‘청렴’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에는 조금 어렵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전교임원 선거를 치루면서 청렴 덕목을 실천하고 나니 결과를 떠나서 큰 보람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나 스스로에게 한 세 가지 다짐을 지켜 냈다는 것이 자랑스럽게 생각되었다.

나는 이제 청렴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게 되었다. 청렴의 씨앗은 ‘결심’ 이고,

청렴의 줄기는 ‘이겨내는 것’ 이고, 청렴의 열매는 ‘땀땀함’ 이다. 앞으로도 내가 경험을 통해 깨달은 소중한 ‘청렴한 세상’에서 흔들림 없이 계속 살아가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달의 입을 만한 책

▶ 그 길 끝에 다시 (함정임 외 / 바람 출판사)



일곱 명의 소설가들이 모여 일곱 개의 도시를 선택했다. 이 책은 그 각각의 도시를 주제로 쓴 작가들의 단편소설을 묶어 낸 작품집이다. 함정임, 한창훈, 이기호, 손흥규, 백영옥, 김미월,

윤고는 등 현재 한국 문단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작가들이 선택한 도시들의 면면은 부산, 여수, 원주, 정읍, 속초, 춘천, 제주 등이다.

우리에게 몹시 익숙한 지명들이다. 일곱 편의 소설 속에서 도시는 때론 인물의 욕망을 매개하는 주요한 모티프로, 때론 스쳐가는 배경으로, 때론 끝내 떠나지 못한 고향으로 등장한다. 일곱 명의 작가들이 새롭게 들려주는 그 도시들은 우리가 알던 그 모습과 비슷하기도 하고 한편으론 정말 그 곳이 맞을까 의문이 들만큼 낯설기도 하다.

예를 들어 소설가 손흥규의 <정읍에서 울다>에 등장하는 정읍은 파스하고 정겨운 전형적인 '고향'의 이미지가 아니라 빈껍데기만 남은 채 쓸쓸하게 살아가는 노부부의 모습으로 형상화되고, 백영옥의 <결혼기념일>에서 '나'가 결혼식을 올린 도시 속초는 낭만의 기표가 아니라 이혼한 남편과의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허망한 이름이다. '나'는 그곳에서 필연적으로 길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 우리가 익숙한 이 도시에서 자주 그렇듯이.

〈추천자: 정이현(소설가)〉

▶ 폭삭 속았수다 (성우제 / 강 출판사)



우리의 국토는 기록과 각성을 통해 다시 태어난다. 1990년대 유홍준 교수의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는 국토와 유산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도록 한 대표적 기록이다.

2000년대 제주올레는 주목받지 않았던 우리 땅 구석구석의 평범한 아름다움에 전혀 다른 의미를 부여한 국민적 각성이었다. 전직 기자인 저자는 스무 날동안 26개 코스 425킬로미터의 올레코스를 완주했다. 그냥 걷기만 한 것이 아니라 마을 사람, 길을 만든 사람, 길을 걷는 사람들을 만났다. 제주의 빼어난 풍광, 슬픈 역사, 다양한 풍습도 함께 만났다. 1만8000명의 신과 함께 공존하는 제주도의 숨결을 생생하게 느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탄생한 책이어서 제주올레를 꿈꾸는 사람들에게는 단순한 가이드북 이상의 가치가 있다. 저자는 자신이 걸었던 캐나다의 브루스트레일을 떠올리면서 제주올레길을 생각한다. 그에 따르면 외국 트레일의 경우, 길 중간에 동네가 나오면 길은 마을을 우회한다. 가끔 인가를 만나도 문은 꽁꽁 닫혀있고, 사람의 그림자도 볼 수 없다. 반면 제주올레길은 동네 안으로 곧장 들어가 마을과 사람 사는 모습을 직접 볼 수 있게 해놓았다. 사람이 사는 모습을 직접 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외국 관계자들이 제주 올레길에 주목하는 것도 바로 이 점 때문이라고 한다.

〈추천자: 이하경(중앙일보 논설주간)〉

주부교실게시판

■ 전국주부교실지도자대회

해마다 본회의 지도자들이 지도력 향상과 회원 간 화합과 결속을 다지기 위해 전국지도자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여객선 침몰 사고로 연기되었던 올 대회를 '나눔과 봉사로 복지사회 실현에 앞장서는 전국주부교실지도자대회'라는 주제로 다음과 같이 개최합니다.

- 일 시 : 2014년 7월 2일 (수) 13:00
- 장 소 : 더케이서울호텔 (서울교육문화회관) 3층 거문고홀
- 참석대상 : 전국의 16개 시도지부 및 산하 232개 시·군·구 지회 회장 및 임원
- 문 의 : (02)2265-3627~8, 0637

■ 여름철 냉방온도 실태조사 및 에너지 절약 캠페인

본회에서는 올 여름도 전력난이 예상되는 가운데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해 서울, 부산, 인천 등 11개 지역에서 에너지 과소비 건물을 중심으로 적정 냉방 온도 준수 실태조사 및 에너지절약 홍보 캠페인을 다음과 같이 실시할 예정입니다.

	냉방온도 실태조사 (2회)	에너지절약캠페인 (7회)
일 정	2013년 7월 2일~25일(1차) 2013년 8월 8일~22일(2차)	2013년 7월 1일~8월 30일
대 상	백화점, 은행 등 다중이용시설 총 1,200곳	일반 시민

■ 주부대학·대학원 방학

본회가 운영하는 주부평생교육 프로그램인 주부대학(83기)과 주부대학원(21기, 22기)이 다음과 같이 방학에 들어갑니다.

	방학기간	개강일시
제83기 주부대학	2014. 7. 31~2014. 8. 26	2014. 8. 27/10:30
제21기 주부대학원	2014. 8. 1~2014. 9. 3	2014. 9. 4/10:30
제22기 주부대학원	2014. 7. 30~2014. 9. 1	2014. 9. 2/10:30

■ 의류 및 세탁물 피해 상담 및 구제

본회 소비자정보센터에서는 소비자와 업체간 의류 및 세탁물 관련 분쟁해결을 위해 <의류심의분쟁조정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 문제 발생시 다음의 내용을 참조해 소비자 피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접수문의 : (02) 2266-5870, 2273-6300, 2485
- 홈페이지 : www.nchc.or.kr

■ 중랑여성인력개발센터 수강생 모집

본회가 여성적합직종개발 및 훈련으로 다양한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잠재된 직업 적성 능력을 개발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여성인력개발센터(중랑구 소재)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매달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 홈페이지 : www.jungang.seoulwomen.or.kr
- 문 의 : (02)3409-1948~9



손기순(대구광역시지부 회장)

회원들의 열정과 화합이 지부의 가장 큰 원동력

대구광역시지부는 1981년 7월 1일 행정구역 개편에 의해, 대구시가 경북에서 분리되어 대구직할시로 승격됨에 따라 대구직할시지부로 창립하게 되었고, 1995년 1월 1일자로 직할시가 광역시로 변경됨에 따라 대구광역시지부로 변경되면서 당시 6개 지회가 설치되었고 현재 8대 지회를 운영하고 있다.

초대 박상희 회장, 2,3,4대 김영숙 회장에 의해 소비자의 권익보호에 앞장서는 소비자 상담실을 운영하면서 그 활동 영역을 키웠고, 2004년 손기순 회장이 5대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건강한 가족구현 사

업 및 환경보존사업을 시작하면서 소비자 단체로서의 영역을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다.

우리 대구시지부는 다문화가족 소비자교육 및 캠프, 성매매시민 감시단, 여성 건강증진을 위한 유방암예방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지역 내 큰 역할을 하는 사업으로는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에너지 절약교육 및 캠페인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소비자 권익향상을 위해 건전한 소비생활 교육 사업으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소비자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녹색생활 실천교육 및 자원

순환 교육을 통해 지구사랑, 자연사랑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회원들의 다양한 활동 중에서도 2000년부터 계속되어지고 있는 '대구사랑 가족 동요부르기 대회'는 13년의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탈 가족화가 문제되고 있는 요즘 가족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느끼게 되는 대구시지부의 자랑스러운 프로그램 중 하나이다.

핵가족부터 3대가 함께 하는 다양한 가족들이 동요를 준비하면서 가족들 간의 의사소통의 장이 되고 화합의 시간이 되어 대회의 결과보다는 대회를 준비하는 기간 동안 가족 사랑의 훈훈한 이야기들을 많이 만들었다는 후일담을 전해 들었다.

또 하나의 특색사업으로는 성매매방지 시민감시단의 운영이다.

2006년 시범 사업으로 시작하여 2008년부터 현재까지 계속하고 있는 사업으로 아름답고 안전한 녹색도시 대구로 한걸음 나아가는 노력의 일환으로 자율적인 성매매 방지 시민감시단을 구성해 활동하고

있다. 주택가로 파고드는 음성적인 신·변종업소들의 증가를 막고 여성의 안전이 보장되는 지역을 만들고 꾸준한 성매매 근절을 위한 감시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중장년, 노년층뿐만이 아니라 청소년 가출로 인한 성매매자의 증가 등 그 심각성을 인식하고 사회적인 병리 현상을 방지하며 성범죄예방 및 불법 성매매를 근절하여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는 중추적인 역할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애쓰고 있다.

OECD국가 중 유방암 발병률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아름다운 여성으로 커가는 미래의 숙녀들에게는 꼭 필요한 교육인 유방암 교육을 2012년부터 이어오고 있다.

그 외에도 회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모니터 교육, 취약계층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미술심리 치료 교실을 열어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희망 메시지를 전해 주고 있다.



〈지구사랑 한마음 에너지절약 실천프로젝트 및 릴레이 캠페인〉



〈제14회 대구사랑 가족동요 부르기대회〉



〈여성이 행복한 도시, 성매매 방지 캠페인〉

지부소식

전국 16개 시·도 지부 232개 시·군·구 지회

서울특별시지부



■ 반부패·청렴실천을 위한 업무 협약식 및 금연 캠페인

강남구지회(곽한옥)에서는 지난 4월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강남지사 강당에서, 은평구지회(회장 이상옥)에서도 4월 18일 은평지사 강당에서 각각 ‘반부패·청렴실천 협약서’를 체결했다.

이후 강남지회 회원 40여명은 2호선 강남역 인근에서, 은평구 회원 10여명은 불광천 주변에서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금연 캠페인을 전개했다.

부산광역시지부

■ 텃밭가꾸기 교육 및 현장체험

시지부(회장 김기묘)에서는 지난 5월 12일~16일 시지부 강의실에서 회원 및 주부 60여명을 대상으로 가정에서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텃밭가꾸기 교육을 실시했고, 27일에는 기장면 와여마을을 방문해 수경재배, 토경재배, 병해충관리 등 텃밭가꾸기를 직접 체험하는 기회를 가졌다.

■ 의약품 안심서비스(DUR) 교육

5월 12일 시지부 강의실에서 회원 및 소비자 60여명을 대상으로 의약품 오남용 예방을 위해 제공되고 있는 의약품 안심서비스(DUR) 교육을 실시해 관련 서비스에 대한 설명을 비롯해 의약품의 올바른 사용방법 등을 소개했다.



대구광역시지부



■ 모니터 교육

시지부(회장 손기순)에서는 지난 5월 2일 삼익 신협 본점 3층 교육실에서 모니터 회원 40명을 대상으로 흡연피해 구제방안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역할에 대한 교육, 23일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관리되고 있는 우수농산물(GAP)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 에너지절약 교육 및 캠페인

5월 9일 삼익 신협 본점에서 회원 40여명을 대상으로 에너지관리공단 서선기 부장이 에너지절약의 필요성 및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고, 회원 35명이 20일 죽전 네거리 앞에서 에너지관리공단 직원들과 함께 에너지절약 홍보를 위한 지구 한마음 릴레이 캠페인을 전개했다.

■ 에너지사랑 행복봉사단 활동

5월 21일 호동어린이집 강당에서 어린이 40명을 대상으로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제작된 에너지절약 홍보 동영상을 보여주며 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에너지 절약법 등을 교육했다.

인천광역시지부

■ 봉사활동

계양구지회(회장 고영숙) 회원들은 5월 22일 계양구청 강당에서 가진 아시안게임 소양교육에 안내 도우미 활동, 30일에는 치매주간보호센터 늘봄사랑터 어르신들을 위한 보조 도우미로 활동했다.

남구지회(회장 이은자) 회원 12명은 5월 9일 연경산에서 쓰레기 줍기 등 등산로 환경 정화활동에 참여했고, 회원 5명은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도화2,3동, 주안6동 주민센터에서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했다.

남동구지회(회장 김현숙) 회원은 5월 7일 선학동 복지회관에서 독거노인과 한 부모가정 아이들을 위한 빵을 만들어 전달했고,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인천검찰청 민원실에서 도우미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서구지회(회장 이민자) 회원 11명은 5월 12일과 19일 서구 노인 복지관을 방문해 어르신을 위한 중식 제공 도우미 활동을 전개했다.

연수구지회(회장 유명희) 회원 20명은 5월 19일 청량산을 찾아가 휴지 줍기 등 환경정화 활동을 벌였다.

강화군지회(회장 사영애) 회원 2명은 매주 수요일 강화읍사무소에서 민원상담 및 청소 봉사를 실시했다.

옹진군지회(회장 김태연) 회원 4명은 매주 목요일마다 행복담 어린이집, 영흥군 어린이집을 각각 방문해 어린이들을 위한 동화 구연 봉사활동을 실시했고, 회장과 회원 13명이 어버이 날인 5월 8일 영흥 노인회관을 방문해 어르신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며 말벗이 되어 드렸다.

광주광역시지부



■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홍보 간담회

시지부(회장 박영희)에서는 5월 20일 명예감시원, 시청 관계자, 신문 사 기자 등 16명이 시지부 사무실에 모여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홍보 간담회>를 갖고 종량제 홍보를 위한 효과적인 방법 등을 논의했다.

대전광역시지부



■ 분회장회의 및 보험소비자 교육

시지부(회장 송병희)에서는 5월 9일 시지부 2층 강당에서 분회 및 지회 임원들이 모여 활동상황 보고 및 사업 운영의 어려움을 비롯해 시지부 사업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5월 29일에는 시지부 2층 강당에서 소비자들의 손해보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1372상담원 50명을 대상으로도 장기보상의 이해 및 손해보험 소비자 상담 관련 교육을 실시했다.

울산광역시지부

■ 신세대 할머니 교육 및 녹색생활을 위한 실용 교육

시지부(회장 박보봉)에서는 건전가정 육성을 위한 손자·손녀 돌보기 교실 운영 사업 일환으로 지난 5월 15일 축협 대회의실에서 여성 어르신 65분이 울산광역시 건전가정지원센터 배경의 사무국장으로부터 신세대 육아법 등을 교육 받았다.

이후 같은 장소에서 회원 및 일반 여성 50여명을 대상으로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EM 발효액 만들기를 비롯해 친환경 삼푸 및 천연화장품 만들기 교육, 30일에는 회원 및 여성 40명을 대상으로 재활용품을 이용한 냅킨아트 교육을 실시해 녹색생활 실천을 유도했다.

■ 친환경 농산물 홍보 교육 및 캠페인

5월 15일 축협 회의실에서 회원 및 주부 55명을 대상으로 우리 농식품의 우수성 홍보 교육을 실시했고, 교육 후 회원 30여명이 신정시장에서 홍보 캠페인을 전개해 친환경 농산물 소비촉진에 앞장섰다.



■ 청소년 대상 환경·소비자 퀴즈대회

5월 16일 중구 청소년문화의집에서 청소년 40여명을 대상으로 환경 문제의 심각성과 환경의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한 환경퀴즈 대회와 함께 소비자문제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한 소비자퀴즈대회를 각각 마련했다.



경기도지부



■ 농식품 스마트소비자아카데미 현장체험 및 교육

도지부(회장 박명자)에서는 친환경 농업 및 안전한 식생활 문화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경기도지사 인증 'G마크' 농산물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선정한 '스타팜' 농장과 가공업체 등을 체험하고 있다.

지난 5월 2일에는 회원 45명이 여주 이남주 자연아래버섯농장, 14일에는 양평 양수리과수마을 그린토피아 딸기농장을 각각 방문해 현장 체험 및 친환경 농식품 안전관리제도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

■ 캠페인 및 봉사활동

구리시지회(회장 정순진) 회원 10명은 5월 8일 구리시청 강당에서 어버이날 행사 도우미로 참여해 어르신들께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며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전했다.

광명시지회(회장 장대숙) 명예 물가조사원 13명은 매월 첫째, 셋째, 수요일 대형마트 및 할인점 등에서 주요 생필품 소비자가격 및 유통업체 물가조사를 실시했고 둘째, 넷째 목요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분식점, 문구점 등을 대상으로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을 전개했다.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안양시지회(회장 이영옥) 회원 10명은 호계 노인복지관, 매주 목요일마다 회원 12명이 만안구 장애인 복지관센터를 방문해 어르신들을 위한 중식 제공 및 청소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여주시지회(회장 조미숙) 회원 10명은 5월 7일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식품 위생 감시원 활동을 전개했다.

남양주시지회(회장 박순자) 회원들은 5월 2일 진정읍 장현5 일장에서 농산물 원산지표시 홍보 및 부정유통근절 캠페인을 전개했고, 16일과 22일~23일 퇴계원 주공4단지, 진접부영아파트, 화도 경향아파트에서 이동소비자상담 및 가전제품 무료점검 서비스를 제공했다.

성남시지회(회장 이정하) 회원 17명은 5월 7일과 21일 상대원2동 복지관과 야탑광장, 서현역에 마련된 세월호분향소 자원



오산시지회(회장 장춘화)에서는 5월 7일 오산 국민건강보험공단 오산지사에서 금연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가졌고, 회원 15명은 5월 12일 오색시장에서 농산물 부정유통 근절 캠페인을 전개했고, 회원 12명은 16일 남부복지관과 세교복지재단 급식실을 각각 방문해 무료급식 제공 도우미 활동을 실시했다. 20일과 21일 회원 40명과 가전제품, 자동차 서비스 담당자들과 함께 고현동 현대아이파크 아파트, 세마동 잔다리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이

동소비자 순회서비스센터를 운영해 무상 수리 및 무상 점검 서비스를 제공했다.

의왕시지회(회장 김옥순) 회원 10여명은 부곡시장과 주변 음식점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제도 및 홍보 캠페인을 전개했다.

파주시지회(회장 김순자) 회원 6명은 5월 13일 운정행복센터를 방문해 푸드마켓 봉사활동, 회원 9명은 노인복지회관을 방문해 중식배식 및 설거지 도우미 활동을 전개했다.

평택시지회(회장 박계숙) 회원 5명은 5월 20일 지역 내 차상위가정 13가구에 생필품을 전달하며 위로 격려했고, 회원 17명은 보건복지센터 4층에서 무료급식 제공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강원도지부



■ 봉사활동

태백시지회(회장 오영희) 회원 3명은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 다문화가정 2세대를 방문해 한글 수업을 진행했고, 5월 1일, 15일, 29일 태백장애인종합복지관, 14일과 29일 태백근로복지산재병원을 각각 방문해 거동이 불편하신 환자분을 위한 목욕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충청남도지부



■ 물가안정 캠페인 및 식생활개선 교육

도지부(회장 조춘자)에서는 5월 7일 회원 40여명이 시내 변화가 일대에서 물가안정 분위기 확산을 위한 가두 캠페인을 전개했고, 28일 탄천어린이집과 주미어린이집에서 각각 62명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아침밥의 중요성 홍보 교육을 통해 쌀 소비 촉진 및 국민 식생활 개선에 앞장섰다.



■ 결혼이민여성을 위한 에너지절약 교육

논산시지회(회장 이영화)에서는 5월 12일 논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보령시지회(회장 황희자)에서는 5월 14일 명천종합사회복지관에서 각각 결혼이민자 여성 60여명을 대상으로 에너지관리공단 대전충남지역본부 이종엽 부장이 에너지절약의 중요성 및 절약법 등을 교육했다.

■ 캠페인 및 환경정화활동

세종시지회(회장 신옥순)의 연기군 회원 15명은 5월 9일 조치원 원리 재래시장에서 농산물 바로알기 및 농산물 부정유통 근절을 위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을 전개했다.

홍성군지회(회장 최의자) 회원 30명은 5월 5일 용봉산 등산로 일대에서 쓰레기줍기 등 자연정화 활동을 실시했다.

전라북도지부



■ 축산물 등급제 및 이력제 홍보 교육

도지부(회장 강정자)에서는 5월 19일 도지부 교육장에서 회원 등 30명을 대상으로 축산물품질평가원 황도연 전북지원장을 초빙해 축산물 등급제를 비롯해 소·돼지고기 구입시 이력정보 확인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 어르신 한글교실 등 봉사활동

도지부에서는 지난 4월 15일 도지부 교육장에서 <어르신 한글교실> 개강식을 갖고 어르신 18분에게 한글을 가르쳐 드렸고, 5월 19일 회원 30명이 효사랑전주요양병원을 방문해 어르신 환자분을 위한 간식 제공과 함께 말벗이 되어 드렸다.

■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

5월 19일~23일 창업음식점 전담 명예감시원으로 활동하는 회원 4명이 관내 음식점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감시 및 홍보 활동을 실시했고, 28일에는 농산물명예감시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회원 10명이 전주 신중앙시장 일대 음식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등 원산지 부정유통 근절 캠페인을 전개했다.

■ 캠페인 및 봉사활동

군산시지회(회장 박희순) 회원 5명은 5월 2일과 9일 지회 소비자상담센터 앞에서 금연 캠페인을 전개했고, 같은 날 회원 5명은 군산 시민문화회관에 마련한 세월호 참사 합동분양소에서 조문객 안내 등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김제시지회(회장 문순희) 회원 10명은 정신지체장애인, 치매 노인 등 가정과 사회에서 버림을 받은 사람들이 생활하고 있는 평강의 집'을 방문해 간식을 대접하며 목욕 및 말벗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익산시지회(회장 김채숙)에서는 주 1회 회원 2명이 1조가 되어 관내 음식점, 목욕탕, 정육점 등을 대상으로 위생 점검 활동을 실시했고, 5월 21일 농산물명예감시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회원 10명이 관내 전통시장에서 원산지 미표시 감시 및 관련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정읍시지회(회장 유예순) 회원 4명은 5월 14일~15일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내 문방구, 분식점, 슈퍼마켓 등을 대상으로 어린이보호식품 위생 점검 활동을 실시했다.

부원군지회(회장 최덕례) 회원 7명은 밑반찬을 만들어 군내 거주하고 계신 독거노인에게 전달하며 말벗이 되어 드렸다.

완주군지회(회장 안춘자) 농산물명예감시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회원 10명은 5월 23일 삼례읍과 봉동읍 전통시장과 주변 음식점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위생 감시 및 홍보 캠페인을 전개했다.

임실군지회(회장 설영옥) 회원 7명은 5월 8일 노인복지시설 '안나사랑원'을 방문해 어르신들에게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며 안마 등 건강 체조를 함께 하며 노년의 쓸쓸함을 위로해 드렸다.

전라남도지부



■ 찾아가는 이동 소비자상담소

도지부(회장 이승자) 회원 18명은 5월 13일 나주목사골시장에서 시장을 방문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이동 소비자상담소>를 마련해 소비자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했다.

■ 캠페인 및 봉사활동

순천시지회(회장 신애란) 회원 10명씩 매주 금요일 순천조례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해 독거노인과 장애인에게 식사를 대접하며 말벗이 되어 드렸다.



완도군지회(회장 임희덕) 회원 5명은 완도오일시장에서 농산물 원산지 부정유통 방지 및 우리 농산물 애용 캠페인을 전개했다.

진도군지회(회장 김영애) 회원들은 5월 14일 세월호 실종자 유가족이 머물고 있는 진도체육관을 찾아가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화순군지회(회장 강금순) 회원 5명은 나주시 배 과수원을 방문해 부족한 일손을 도왔다.

경상북도지부



■ 봉사활동

경산시지회(회장 임순희) 회원 6명은 5월 7일, 구미시지회(회장 남현숙) 회원 10명은 5월 2일 노인복지관을 방문해 중식 제공 및 청소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 가족코치 전문가 양성과정 수료식 및 상담원 교육

시지부(회장 이인호)에서는 5월 8일 구미 새마을회 4층 강당에서 4주 과정의 가족코치 전문가 양성과정을 마친 여성 35명이 수료식을 가졌고, 5월 20일과 27일 구미 새마을회 4층 강당에서 7개 군 지역 상담원과 도지부 모니터 20명을 대상으로 취약지역 이동소비자상담실 운영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영주시지회(회장 김옥순) 회원 5명은 5월 21일 무료급식소 만남의 집을 방문해 음식 조리 및 설거지 봉사활동과 함께 무의탁 독거노인에게 도시락을 전달했다.

영천시지회(회장 이길자) 회원 5명은 5월 22일 마야정신요양원을 방문해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과 어르신을 위한 목욕 및 청소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포항시지회(회장 남순례) 회원 34명은 매주 월요일 학산사회복지관을 방문해 장애인, 독거노인 등을 위한 도시락 조리 및 배달, 세척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고령군지회(회장 설미선) 회원 5명은 5월 16일 대창양로원을 방문해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을 위한 목욕 봉사를 실시했다.

봉화군지회(회장 권영순) 회원 3명은 5월 1일 봉화군 합동분향소에 마련된 세월호 참사 합동분향소 봉사활동, 14일에는 회원 4명이 노인복지센터를 방문해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을 위한 목욕 봉사를 각각 실시했다.

영양군지회(회장 최계숙) 회원 4명은 매주 목요일 군내 거주하고 계신 독거노인을 위해 반찬을 만들어 전달하고 있다.

예천군지회(회장 권춘선) 회원 5명도 5월 21일과 28일 성당 나눔의 집을 방문해 독거노인을 위한 반찬 조리 및 도시락 배달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경상남도지부

■ 제34기 주부대학 개강

도지부(회장 김점숙)에서는 6월 3일 도지부 강당에서 현명한 여성, 주부, 소비자로서의 역할 제고를 위해 운영해 온 <제34기 주부대학> 개강식을 갖고, 3개월 동안 다양한 주제로 교육을 진행한다.

■ 전통시장 살리기 및 봉사활동



통합창원시 마신지회(회장 이수련) 회원들은 지난 5월 16일 창동 부림시장에서 재래시장 이용 홍보 캠페인을 전개했고, 5월 10일 회원 10명은 금강복지관, 회원 50명이 교대로 매주 목요일마다 노인요양병원시설인 '춘추원'을 각각 방문해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김해시지회(회장 김경희) 회원 13명은 5월 7일 구산동 노인복지관을 방문해 중식 제공 도우미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제주특별자치도지부

■ 장바구니 물가조사

도지부(회장 강순희)에서는 물가모니터로 활동하고 있는 회원 5명은 매주 화요일 중대형 매장 및 재래시장 14개 업소를 대상으로 기초 생활용품 85개 품목에 대한 가격조사를 실시해 도청 홈페이지에 주간 물가동향을 올리며 소비자들의 구매 선택에 도움을 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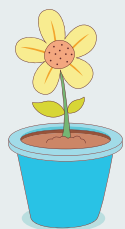
■ 소비자리더 아카데미-파워업 개강식 및 소비자교육



5월 9일 제주시 한우프라자 2층 회의실에서 회원 및 일반 여성 40여명을 대상으로 소비자리더 양성을 위한 <소비자리더 아카데미-파워업> 개강식을 갖고, 강인수 축산물품질평가원장이 '축산물 안전제도와 소비자'라는 주제로 첫 강연을 해주셨다.

5월 2일, 8일, 9일, 12일, 29일, 30일 6회에 걸쳐 도내 노인대학 어르신 330명을 대상으로 어르신들의 피해예방을 위한 소비자 교육을 실시했다.

동정



강원도지부 회장에 오영희 現 태백시지회 회장 취임

그동안 강원도지부 회장으로 지부를 이끌어왔던 이경순 회장이 개인사정으로 사임함에 따라 5월 19일부로 태백시지회 회장과 도지부 부회장을 역임해 왔던 오영희 회장이 강원도지부 회장으로 선임되었다.

7년 연속 세계 판매 1위 일등제습의 힘이란 이런 것!

따져볼수록 완벽한 휘센의 기술 그대로
LG 휘센 제습기가 전 세계를 습기 없이
쾌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2007 2009 2011 2013 2012 2010 2008
LG 제습기
7년연속 세계판매 1위
Euromonitor International Limited, 2007~2013년 소매 판매량 제습기
• 휘센의 기술로 만든 국내산 LG 컴프레서 • 국내 최초 인버터 제습기

LG 휘센 제습기